

반만년민족사를 찾아주신 위대한 은인

사람들 누나라고 푸른 하늘을 띄고 대박산기술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단군릉을 바라볼 때면 우리 민족의 반만년역사와 문화를 빛내주시기 위해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름없는 감사의 정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어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다. 하지만 그 반만년의 역사를 증명할 길이 없어 우리 민족의 첫 건국사는 한갓 전설로 전해왔다. 이 전설을 정설로, 실재한 사실로 조선민족에게 안겨주시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민족이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된것은 단군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우면서부터였다.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에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단군이 세운 고조상은 그후 3000년동안 존속하면서 아시아의 장대한 국가로 발전하였다.

역사책들도 단군의 건국에 대하여 전하고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한갓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간주되었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우리 민족의 시조로 빛을 뿌리게 된것은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력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하여 우리 선조들은 단군을 하늘이 낸 임금, 단군천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대성인으로 칭송했고 후지신라의 유명한 화가 송거는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게서 붓을 받는 꿈을 꾸고 단군의 화상 1000여상을 그려 후세에 전해지게 했다고 한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력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90년대초까지 단군이 신화적존제로만 되어온데는 우리 조상들이 그를 민족의 원시조로 신격화하면서 많은 전설들을 만들어낸데도 있지만 보다는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을 위한 조선민족사위무책동과 관련되어있다.

에국에족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찾아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단군의 출생지와 고조선의 수도문제를 주제적립장에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확증하도록 하시고 력사학계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국적인, 전 인민적인 범위에서 단군과 관련한 유적유물발굴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다. 특히 주체82(1993)년 1월에는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도 발굴해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력도에 의해 오래동안 사람들의 관심밖이었던 단군릉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993년 2월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발굴되게 되었다.

1993년 10월 《로동신문》에 실린 《단군릉보고》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중전에 신화적, 전설적인 물로 간주되었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조선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다.

1993년 10월 《로동신문》에 실린 《단군릉보고》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중전에 신화적, 전설적인 물로 간주되었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실지로 반만년

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단군이 고조상을 숭상하고 도읍을 평양에 창수하였던 곳으로서 검은모루유적의 주인공과 《력조사람》(고인), 《만달사람》(신인), 조선옛류형사람으로서 이어지는 인류발상기의 하나이며 조선민족의 발생

지역고 첫 국가의 발생지였다는 사실이 힘있게 증명되었으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떼뎠이 자랑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단군릉의 발굴과 단군의 유골발견은 우리 고고학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조선민족의 큰 승리로 된다.》

웅장하게 일떠세워주신 시조릉

1994년 10월 평양시 강동군에 단군릉이 새로 일떠섰다. 단군릉은 1994개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9개 단의 계단돌무덤으로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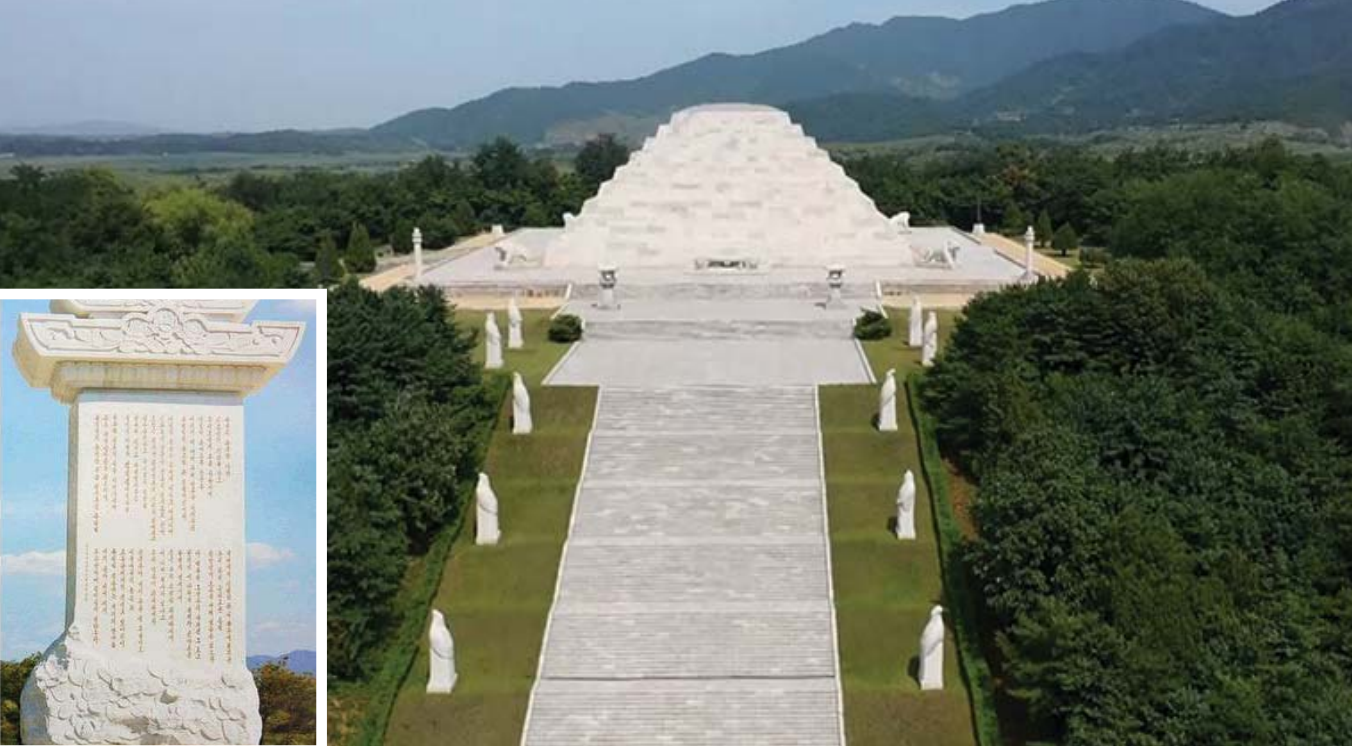
단군릉의 총 부지면적은 45정보다이다. 단군릉은 크게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과 석인상구역 및 중심구역으로 나뉜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

조 단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단군릉은 단군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와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보여주는 력사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민족의 전통적인 무덤양식에 연원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성이 매우 짙은 문화적재보이다. 또한 단군릉은 건국공화적으로 매우 웅장하며 조선사람의 미감에

매우 잘 처리된 우수한 대견 축물이다. 여기에 세워진 조각상들 역시 조형예술적으로 잘 처리된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이처럼 민족의 시조릉으로 대박산기술에 웅장하게 일떠선 단군릉에는 바로 민족의 력사를 영원히 빛내여가시려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가 응축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확정된 조건에서 평양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잘 꾸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굴공정의 품으로 몸소 강동땅을 찾으시어 앞이 훤히 트인 대박산기술 야산마루우의 명당자리에 개건할 단군릉터를 정하여주시었다.



오랜 력사책인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백성들에게 리익을 주기 위해 인간살이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다고 씌여져있으며 《단군고기》에는 《단군왕검은 삼일신고를 천하에 포고하고 366일의 신정으로 나라 백성들을 순박하도록 훈계하니 그 덕은 하늘명과 같았고 그 밝은 해와 달같았더라.》고 씌여있다. 그리고 《제왕운기》, 《세종실록》을 비롯한

날로 꽃피어나는 민족문화와 전통

공화국에서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고 개화발전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장려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살려나갔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전 10월에 돌출하는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에서 민족유산보호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로작에서 력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하는 문제,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이 깃든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갔도록 하는 문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유산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밝혀주시면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가는데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신지는가 하는것은 개건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주제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워주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주체103(2014)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립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시공에서 주제성과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국제비행장으로 들어가는 순안다리입구에 대성산혁명 력사릉터형 평양국제비행장이라고 쓴 민족적양식의 문구를 세우고 항공역사의 처마 밑에 백호무늬같은것을 같은 색으로 약간 두드러지게 장식하는것이 좋겠다고, 평양항공역은 평양의 관문, 우리 나라의 얼굴이나 같으며 나라의 경제력의 징표라고 말할수 있다고, 그러므로 항공역사를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평양항공역사를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주제와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음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러자면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장식을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그 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항공역사건설에 수할대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역사의 모든 봉사시설들을 우리의 뜻,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설비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계신다.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민족애는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을 비롯한 민족우산장을 장려하고 새집들이인 가정을 축하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성냥을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들고가도록 하시는데 비교되고 조선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상표 등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상표를 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야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도 답격되었다. 또한 지방특산물생산을 늘이도록 하시 력도의 손길에도 비껴나지 않았다.

본사기자 한일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몇해전 10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어 지방특산물생산에 큰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삼가운데서 개성인삼의 약효가 제일 높다는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개성인삼재배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또한 개성인삼뿐 아니라 안변감, 성천약밤, 회령백살구를 비롯한 지방특산물들을 보호하고 그 생산을 늘이도록 할데 대하여도 이르지였다.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태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갔도록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도에 의해 민족적창회가 뛰어나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래년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이 장려되고있으며 옷돌이, 팽이치기와 같은 전통적인 민족놀이들이 진행되어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가 한껏 차남치고있다.

얼마전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전국대항군중체육대회-2022에서 바둑당기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민족체육경기종목들이 시종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띤 광경을 펼치였다.

공화국을 방문하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이어지고 더욱 발전하고있는 현실을 본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의 얼이 살아 맥박치는 민족의 성지》, 《애제도 오늘도 변색되지 않은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본다.》고 방문소감을 터놓았다.

진정 고향을 가꾸어 꽃피우는 손길을 떠나 만발하는 화원을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민족의 얼이 살아있고 정기가 차남치는 이 땅의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갔도록 이끄시는 절세의 예주자, 민족의 위대한 력도자를 높이 모셔야 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이어질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안게 한다.

본사기자 한일혁

사회주의부분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법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선 신차적인 관심을 돌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헌, 유원지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

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등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 법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아낌없고 명명한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 보호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선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여이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었다.

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력도에 의하여 마련된 법률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바다를 황금해로 점변시켜 인민들에게 맞춤형 신선한 물고기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구절구절에 흘러넘치는 수산법이다.

원수님의 인민공화국 령의봉사업,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젓개 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룡답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도 충실히 꾸리려는 조선로동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특화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구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특화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들에도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민족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가 력력히 비껴있다.

참으로 공화국의 모든 법률들에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할분담의 의지가 비껴있고 숭고한 지향이 어여이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의대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펼쳐나갔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영원토록 빛을 뿌릴 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주시어

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등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 법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아낌없고 명명한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 보호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선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여이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었다.

국가활동전반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일관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복지를중심에 놓으며 세우고 국가의 행행해나갔도록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을 교육강령집행 조건과 환경을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 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화 질서를 바로세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중진시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명시한 조

사랑받아 지어주신 이릉들

우리 나라에는 무지개와 관련한 전설이 수없이 전해 내려오고있다.

무지개가 비친 곳에는 금은 보화가 있다는 전설도 있고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내린다는 전설도 있다.

이처럼 무지개와 관련한 전설이 많은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드러온 무지개가 그리움이 아름답고 신비하기때문이다.

그 아름답고 명랑한 무지개가 대동강에 언제나 비껴있게 해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을 잘 꾸려 유류교와 대동강다리사이에 띄워놓으니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장소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종합봉사선의 설계도 지도해주시고 건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었다.

그리고 배의 이름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었다. 주체104(2015)년 9월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사람들이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에 휩싸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새로 건조중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기 위해 대동강으로 나오시었다.

구슬이 흘러가는듯한 대동강 한복판에 밝고 아름다운 색들로 불장식을 하고 떠있는 종합봉사선은 만발치에서 보아도 황홀하기가 실로 아름답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새로 건조중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이름그대로 칠색명랑한 무지개같이 멋있고, 《무지개》호를 대동강에 띄워놓으니 대동강이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인종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양음료실, 동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진진방식당, 삼정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더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던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정녕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우리 인민들이 하루 빨리 사회주의민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속에 마련된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오늘도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찾는 사람들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시려 그 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을 바탕으로 절감하며 격동된 심정을 터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